

# 매체 유형에 따른 초등학생의 읽기 성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ading Performa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Media Type

노 경 국 (Kyungkuk Noh)\*

소 병 문 (Byoungmoon So)\*\*

###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 방법 |                |

**요약:** 이 연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원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별 읽기 성과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매체 유형에 따른 읽기 자료의 완독 시간과 내용 이해도를 묻는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동일한 기사 내용을 3개 모둠으로 나누어 각각 매체 유형을 달리해 읽는 시간을 측정하고 평가 문항을 통해 매체에 따른 내용 이해도를 확인하였다. 측정 결과, 웹 페이지의 평균 완독 시간은 3분 28초이며, 평균 평가 문항 정답 개수는 3.99문제였으며, pdf 파일의 평균 완독 시간은 5분 23초이며, 평균 평가 문항 정답 개수는 4.35문제였다. 또한 인쇄자료의 평균 완독시간은 7분 14초이며 평균 평가 문항 정답 개수는 6.26문제로 나타났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 수는 144명으로 연구자의 실험 결과만으로 매체 유형에 따른 읽기 방식을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제어:** 독서교육, 독서방법,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디지털 리터러시, 매체 교육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medium-specific reading instruction method for digital natives exposed to various reading media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this purpose,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H-si, Gyeonggi-do was selected and the readability and literacy tests according to the media were conducted for 6th graders. In the experiment, the same article conte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nd the time required to read and read using different media was measured, and the literacy according to the media was confirmed through quizzes. As a result of the measurement, the average reading time of the web-page was 3 minutes 28 seconds, the quiz correct answer rate (average) 3.99 questions, the average reading time of the pdf file in the form of an e-book was 5 minutes 23 seconds, the correct answer rate (average) 4.35 questions, the average reading time of the printed text was 7 minutes 14 seconds, and the correct answer rate (average) 6.26 questions. The number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is 144, and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ing the reading method according to the media type only with the results of the researcher's experiment.

**KEYWORDS:** Reading Education, Reading Method, School Library, Teacher Librarian, Digital Literacy, Media Literacy

\*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문헌정보교육학 전공, 수원여자대학교 도서관 사서  
(libnoh@swc.ac.kr / ISNI 0000 0005 0812 3029) (제1저자)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조교수, 학교도서관연구소 연구원  
(paul7493@kongju.ac.kr / ISNI 0000 0004 7783 7319)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3년 2월 22일 • 최초심사: 2023년 3월 3일 • 게재확정: 2023년 3월 14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1), 221-240, 2023. <http://dx.doi.org/10.16981/kliss.54.1.202303.221>

\* Copyright © 2023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이하 'ICT')의 발달과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대인의 읽기 방식은 달라지고, 독서 문화 또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김성희, 김혜숙(2013)의 연구를 비롯해 여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서와 관련된 연구는 문헌정보학, 국문학, 교육학은 물론 출판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독서의 중요성은 학교와 도서관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등 우리나라 교육·문화정치 등 우리나라 전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인식하고 있다. 천경록(2020)은 초등학교 시기 독서 양상에 대하여 띄어 읽기, 유창하게 읽기,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공감적 독서, 사회적 독서가 나타나며 특히 5, 6학년 시기에는 정서적 반응하기, 몰입하기, 독서토의 및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독서가 초등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보편적 사실이다. 또한, 중등학교의 경우 독서는 제6차 교육과정 이후 국어 교과 내 정규 과목으로 독립해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서의 중요성에 비하여 초·중등 학생의 독서율과 학교도서관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독서는 행위의 주체가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얻고 대리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긍정적 변화를 꾀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따라서 문자 언어가 발명된 이래로 현재까지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되고 있다(노병성, 2008). 이러한 독서의 정의는 주로 종이를 매체로 문자 언어 중심의 인쇄자료를 대상으로 하지만 ICT의 발달과 매체의 다양화로 인하여 독서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의 문식성(literacy) 활동 공간이 종이로 된 인쇄자료를 넘어 전자책과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전자자료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IT 통계보털사이트(ITSTAT)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99.9%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67.2%(3세 이상)가 1주일 평균 20.7시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이용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응답자의 50.8%가 전자책, 웹툰, 웹소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독서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학교 교육과 학교도서관은 인쇄자료 이상으로 읽을거리가 풍부해진 학생들에게 매체별 읽기 방식을 달리하여 독서를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2. 연구 목적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매체 유형에 따라 변화하는 초등학생의 읽기 성과(완독 시간, 이해도 등)

를 파악하고, 학교도서관에 있어 인쇄자료 이상의 다매체 독서 자료 구성에 시사하는 점을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동일한 의미 텍스트를 인쇄자료, 전자자료 1(웹 페이지), 전자자료 2(pdf 파일)로 변환하여 매체 유형별 읽기 자료를 제작한 후 경기도 W초등학교 6학년 6개반 144명을 세 모둠군으로 나누어 제공하였다. 이후 모둠군별로 매체 유형별 읽기 자료를 완독하는 데 걸린 시간과 내용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한 퀴즈의 정답률을 파악하여 읽기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단계별 연구 방법과 내용

| 단계    | 방법               | 내용                      |
|-------|------------------|-------------------------|
| 사전 준비 | 읽기 자료의 선정        | 학년별 담임과 협의 후 선정         |
|       | 읽기 자료의 매체 유형별 변환 | 인쇄자료, 전자자료 1, 전자자료 2    |
| 1단계   | 대상 모둠군 선정        | 2개 학급씩 3개 모둠군 구성        |
| 2단계   | 매체 유형별 완독 시간 측정  | 읽기 전 퀴즈 유무는 사전 미고지(未告知) |
| 3단계   | 매체 유형별 퀴즈 정답률 측정 | 온라인 퀴즈 실시               |

### 3. 선행연구

변화된 독서 환경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체별 독서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원주민과 이주민과 관련된 연구, 독서의 환경과 방식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 복합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와 학교 교육과 관련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의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는 세대별 인식의 속성을 구분짓는 주요한 개념으로 원주민(digital native)과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Prensky, 2001). 이들 개념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의 영향력을 전제로 하여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성인이 서로 다른 언어와 사고방식, 생활 양식을 공유한다는 세대 구분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권예지 외(2015)가 디지털 원주민과 이주민의 개념을 탐색하여 디지털 원주민론의 접근은 미디어 이용의 '정략적인 부분'에서 '정성적인 부분'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김정희(2014)는 디지털 원주민과 이주민의 의사소통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과 미디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적 태도를 가지고 아날로그적 태도를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옥현진, 서수현(2015)은 디지털 원주민 중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문식활동에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하는지, 디지털 문화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독서 환경과 독서 방식의 변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신명환(201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독서 환경의 영역이 확대되며 독자는 다양한 형태

의 독서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류보라(2022)는 전통적 읽기에 국한된 독서교육보다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디지털 읽기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며 디지털 읽기교육의 범위 확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유경(2018)은 독서 매체의 변화가 독서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독서의 대중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통적인 인쇄자료에 대응이 되는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인 노병성(2008)은 디지털 텍스트와 아날로그 텍스트 독서의 차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독서의 장단점을 조합하여 새로운 독서가 가능할 것을 내다보았다. 최숙기(2013)는 디지털시대의 변화된 텍스트 양상인 복합 텍스트의 구성 양식과 이에 대응하는 독자의 읽기 행위를 분석하여 디지털 시대의 복합양식 텍스트 기반의 읽기 교육방안을 제시하였고, 김희동(2015)은 교과서를 구성하는 복합양식 텍스트 양상을 분석하여 텍스트의 유형과 복합양식성이 교과서의 기능적 측면의 관련성을 밝혀내었다.

학교교육 안에서의 독자와 독서 방법에 대한 연구로, 천경록(2020)은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독자 발달과 독서의 발달단계에 대한 새로운 제안으로 기존의 독자 발달 단계 독자 발달 단계(reader development)와 연계해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사람에게도 독자 발달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순영(2021)은 초등학생의 독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독서를 권장해야 하며, 자녀의 독자 유형과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독서 지원 방법이 필요함을 증명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독서와 읽기

‘독서’와 ‘읽기’는 유사하지만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독서’(讀書)는 ‘책을 읽음’으로 해석되어 있으며, ‘읽기’는 ‘국어 학습에서, 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일. 또는 그런 법’으로 해석되어 있다. ‘독서’의 어원적 뜻을 살펴보면, ‘글 혹은 글자(書)’를 ‘소리 내어 읽는다(讀)’ 즉, ‘책을 읽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병기(2009)는 ‘독서’를 ‘인격 수양, 전문 확장, 교양교육 등의 차원으로 수행하는 책 읽기’를 의미하며, ‘읽기’는 ‘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 언어를 읽는 행위 등 폭넓은 행위’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독서의 의미는 매체발달과 함께 광범위하게 변하여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행위를 비롯해 인터넷상의 글을 읽거나 전자책을 읽는 행위에도 ‘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노병성, 2008, 156-157). ICT의 발달과 함께 보편화된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은 많은 양의 정보와 읽을거리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읽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정보화 사회 속에서 독서는 ‘책 읽기’가 아니라 ‘매체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있었다(이재승, 2000, 87).

‘책’이라는 인쇄매체로 한정된 ‘읽기’ 행위는 디지털기기의 등장으로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과 태블릿 PC 등을 통해서도 ‘읽기’가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전자책의 출현은 큰 부피와 무게로 인하여 여러 권의 책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대중에 큰 호응을 얻었다(김현정, 2011, 83). 전자책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국가, 기관,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개념과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되며 변화되고 재개념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웨이첸 외, 2020, 17). 전자책 외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매체 독서는 ‘서칭’, ‘브라우징’ 등의 새로운 용어로 대체되며 독서의 범위는 ‘디지털 읽기’까지 확장되었다. 확장되는 독서의 범주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00년대 초부터 전자책을 포함하여 진행된 독서 실태조사는 2012년 오디오북, 2015년 웹툰을, 2019년 인터넷신문, 웹진 등이 포함되었으며, 2021년에는 챗봇 등 채팅 형식의 콘텐츠 읽기를 포함하여 조사하며 다양한 매체가 독서실태조사에 포함되고 있다.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정보전달이 어려웠던 음성 언어의 한계는 문자의 발명으로 큰 전환점을 맞았고, 잘 알려진 것처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의 금속활자 기술을 통해 책을 대량으로 찍어내며 누구나 ‘독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사람들은 글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책은 인류 역사와 함께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기록, 저장, 전달하는 기능의 ‘문화의 산물’로서 발전해 왔다(김현정, 2011, 79). 이처럼 현대사회는 ‘책’ 뿐만 아니라 디지털기기를 통한 전자책은 물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지만 ‘매체’에 따른 독서 방법을 안내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 2. 복합양식 텍스트

복합양식성(multimodality)으로 설명되는 텍스트의 형식적 변화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읽기 기능과 전략에 대한 교육적 요구를 촉발하고 있다(최숙기, 2013, 227). 복합양식성 이론은 영국의 사회기호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 양식(mode)이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취하여, 인쇄매체의 레이아웃(layout),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양식들이 동등한 의미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복합양식 텍스트의 이해와 관련하여 기존의 문자 또는 인쇄매체에 기반한 읽기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 신문 기사, 광고, 보고서, 인터넷에서 소통되는 문자 중심의 텍스트도 사실은 시각적 특성을 보이는 그림, 도표, 글씨 크기, 레이아웃 등의 다양한 양식으로 이루어진 복합양식 텍스트이기 때문이다(Kress, 2003, 16). 따라서, 복합양식성 이론은 동일한 작품일지라도 어떤 물질성을 지니느냐에 따라 전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지적한다(송여주, 2013, 437). 복합양식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의미에 기여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정현선, 2005; Kress, 2003 등). 복합양식 텍스트는 복합양식으로 소통되는 텍스트로, 물리적인 도구와 기호 체계를 이용해 사회 속에서 의미를 실현하는 독특한 방식인 양식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텍스트를 말하며(옥현진, 서수현, 2011, 222), 둘 이상의 기호 양식이 결합하여 구성하는 텍스트를 말한다(이미숙, 2011, 546).

복합양식 텍스트란, 시각적 이미지, 디자인 설계, 문어적 정보, 다른 의미 자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양식들(modes)을 포함하여 정보를 제시하는 텍스트의 유형이다(Jewitt & Kress, 2003). 따라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주 출현하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문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21세기 새로운 문식성을 지향하는 읽기 교육의 방향은 현대 청소년들의 독서 행동을 형성하는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메시지를 수렴하는 다층적 디지털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송여주, 2013).

일반적으로 종이책은 디지털기기보다 눈의 피로가 덜하다는 점과 필요에 따라 밑줄 긋기 등 자신만의 메모가 가능한 점이 장점이며, 부피와 무게의 부담으로 인하여 원하는 시간에 즉시 독서하기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원하는 책을 구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서점을 방문하거나 주문을 통해 2일에서 3일을 기다려야 하는 즉시성이 부족한 것 역시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전자책 등 디지털 매체의 독서는 종이책의 최대 단점인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디지털기기만 있다면 언제든지 독서가 가능하다는 점과 책의 부피와 무게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업적 독서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많은 양의 도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의 두께와 수량, 공간의 제약 없이 독서가 가능하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지만, 디지털 기기의 특성상 독서 중 외부 간섭(광고, SMS, SNS)은 독서의 집중을 저하시키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눈의 피로도와 시력 저하의 위험성 역시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과 연구 절차

매체 유형에 따른 초등학생의 읽기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의 설계로,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W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해당 초등학교 6학년의 정원은 152명이며 평균 24명~26명으로 구성된 6개 학급으로 이루어졌다. 위 연구를 위한 수업은 2023년 1월 4일(수) 6학년 국어 교과 시간에 진행되었으며, 당일 결석한 8명을 제외한 144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의 설계를 위하여 읽기 자료는 내용에 따른 텍스트 구분으로, 정보 텍스트인 신문 기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읽기 자료의 최초 내용은 도서관 관련 기사를 제안하였으나 6학년 담임 선생님과 협의 과정을 통해 '세종대왕'과 관련된 기사를 선정하였다. 읽기 자료가 되는 대상 신문 기사는 온라인 '한겨레'의 2020년 11월 4일에 등록된 '세종대왕이 광화문에 나와 받는 별' ([https://www.hani.co.kr/arti/well/well\\_friend/968462.html](https://www.hani.co.kr/arti/well/well_friend/968462.html)) 이라는 제목이며 아래 <그림 1>과 같이 문자 언어와 사진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복합양식 텍스트이다.



<그림 1> 온라인 신문 기사 예시

이 연구에 적용된 읽기 자료는 온라인 신문 기사의 특성에 따라 전자자료의 유형인 웹페이지이며, 이를 인쇄자료와 또 다른 전자자료로 매체 변환(media converting)을 실행하였다. 전자자료 1은 원래 읽기 자료인 웹페이지로, 본문과 관련된 사진 3장과 상업 광고 7개가 삽입되었으며, 전자자료 2는 웹페이지를 pdf 형식으로 변환했으며 본문과 관련이 없는 상업 광고는 삭제하였다. 인쇄자료는 전자자료 2인 pdf를 출력한 자료로, A4용지 4장 분량이다.

이렇게 구분한 3개 유형의 읽기 자료는 매체 유형당 2개 학급으로 배당해 3개 모둠군을 구성하였다. 모듬 1은 웹페이지(전자자료 1)를 읽기 자료로 하며, 48명으로 구성되었다. 모듬 2는 pdf(전자자료 2)를 읽기 자료로 읽으며 46명으로 구성되었고, 모듬 3은 A4 4장 분량의 컬러 출력된 인쇄자료를 읽으며 인원은 50명이다.

모듬 1과 모듬 2의 읽기 자료는 전자자료 특성상 중개 매체로써 11.5"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교육용 태블릿을 두 모듬 모두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중개 매체 기기는 동일한 조건이지만, 내용 이해를 위해 스크롤을 하는 과정에서 웹 페이지(전자자료 1)는 추가 이미지(상업광고)가 팝업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pdf(전자자료 2)는 추가 이미지가 없는 고정 형태로 읽게 된다. 모듬 3의 읽기 자료는 모듬 2와 동일한 내용 조건에 해당되지만, 중개매체 기기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   |                                      |
|---|--------------------------------------|
| 정보 전달 텍스트<br>informational text             | 문예 텍스트, 문학 작품<br>literary text/ work |
| 논픽션<br>nonfiction                           | 픽션<br>fiction                        |
| 비문학, 비문학 텍스트<br>non-literary/ non narrative | 문학<br>literature                     |
| 사실 문학<br>literature of fact                 | 허구적 서사물<br>fictional narrative       |
| 설명적 텍스트<br>expository text                  | 서사 텍스트<br>narrative text             |

〈그림 2〉 내용 형식에 따른 텍스트 구분

정보 텍스트로서 신문 기사는 정보 전달, 논픽션, 비문학, 설명적 텍스트의 속성을 지닌다. 읽기 자료의 정보 텍스트 속성을 감안해 초등학교 6학년 읽기 수준에 맞는 신문 기사를 추천받았으며, 텍스트로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제목: 세종대왕이 광화문에 나와 받는 벌
- 주요 내용: 용비어천가 소개로 시작한 본문은 우리나라 ‘뿌리’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외래어가 난무하고 있는 현 사회에 대한 비판과 방송에서조차 자제하지 않고 사용되는 외래어 사용행태에 대하여 ‘우리말을 확대’한다는 표현과 함께 이를 질타한다. 또한, 정치인들이 특정한 날에 현충원에서 묵념을 하듯 세종대왕을 기린다면 국민들도 조금이나마 ‘한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한다.

위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 텍스트를 읽고 내용 이해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문제를 제시해 풀도록 하였다. 제시된 평가 문항은 모두 10문제로, 애들러 외(1993, 24-25)의 점검 독서(inspectional reading)와 분석적 독서(analytical reading) 수준을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PISA 2018의 읽기 평가 요소인 ‘정보의 위치 파악’과 ‘텍스트 이해하기’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또한 PISA 2018은 기존 평가였던 PISA 2009, 2012, 2015의 평가 방법보다 세분화된 평가틀을 적용하고 있으며(조성민, 2019, 42), 각 평가틀의 내용과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읽기 자료를 비교해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PISA 2018의 읽기 평가틀과 읽기 자료의 비교

| 차원  | PISA 2018         |                          | 읽기 자료       |
|-----|-------------------|--------------------------|-------------|
|     | 범주                | 종류                       |             |
| 과정  | 텍스트 과정            | 정보 찾기, 이해하기, 평가와 성찰하기    | 정보 찾기, 이해하기 |
|     | 과제관리              |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점검, 조정     | 목표설정과 계획 수립 |
|     |                   | 유창하게 읽기                  | 대상 아님       |
| 텍스트 | 출처                | 단일, 다중                   | 단일          |
|     | 조직과 탐색            | 정적, 동적                   | 정적          |
|     | 체제                | 연속, 비연속, 혼합              | 연속          |
|     | 유형                | 기술, 서사, 설명, 논증, 지시, 상호작용 | 기술, 설명      |
| 상황  | 개인적, 공적, 교육적, 직업적 |                          | 공적, 교육적     |

이상과 같은 내용 배경을 토대로 개발된 평가 문항은 대상 초등학교 교사의 수준 검토를 받아 국어 교과 시간에 실시하였다. 읽기 이해도 평가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항별 PISA 2018의 읽기 평가들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평가 문항의 내용과 PISA 2018의 읽기 평가들과의 비교

| 평가 문항                           | PISA 연관성     |
|---------------------------------|--------------|
| ① 읽은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 이름은?           | 정보 찾기        |
| ②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이해하기         |
| ③ 읽었던 기사의 제목은?                  |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 |
| ④ 기사 본문에 나온 사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정보 찾기        |
| ⑤ 기사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틀리게 말한 사람은?  | 이해하기         |
| ⑥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람은?             | 정보 찾기        |
| ⑦ 기사에서 언급한 나라가 아닌 것은?           | 정보 찾기        |
| ⑧ 기사에서 소개된 내용과 다른 설명은?          | 정보 찾기        |
| ⑨ 기사가 작성된 시기는?                  | 정보 찾기        |
| ⑩ 기사에서 소개된 외래어가 아닌 것은?          | 정보 찾기        |

## IV. 연구 결과 및 분석

### 1. 읽기 성과의 포괄적 결과

이 연구에서 매체 유형별 읽기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표는 읽기 자료를 끝까지 읽는데 걸리는 시간과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이다. 완독 시간은 내용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평가가 있음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조건에서 평소의 읽기 습관에 따라 평가된 이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지표에 따라 읽기 자료에 대한 평균 완독 시간은 5' 34" 이다. 매체 유형이 차이가 있긴 하더라도 내용 텍스트는 글자(공백 포함) 4,037자, 문단 12개로 이루어졌으며,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환산하면 20장 분량이 된다. 이 분량을 어느 매체에 답았느냐에 따라 완독 시간은 차이가 났으며, 완독한 시간이 짧은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전자자료 1(웹페이지) → 전자자료 2(pdf) → 인쇄자료 순이다. 다음은 평가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다. 전체 10문항을 풀었으며 평균 정답 문항 개수는 4.9문항이다. 이 결과 역시 어느 매체를 읽었느냐에 따라 정답 문항 개수가 차이가 났으며, 높은 순서에 정리하면 인쇄자료 → 전자자료 2(pdf) → 전자자료 1(웹페이지) 순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모듈별 읽기 성과의 결과 개요

| 전체    | 대상           | 모듈 1<br>(웹 페이지) | 모듈 2<br>(pdf) | 모듈 3<br>(인쇄자료) |
|-------|--------------|-----------------|---------------|----------------|
| 144명  | 참여 인원        | 48명             | 46명           | 50명            |
| 5'34" | 완독 시간(평균)    | 3'28"           | 5'23"         | 7'18"          |
| 4.95개 | 정답 문항 개수(평균) | 3.9개            | 4.3개          | 6.2개           |

평가 문항별 정답자 인원을 살펴보면 ‘문항 7번’ 본문에서 언급한 나라: 125명/144명(87%)과 ‘문항 10번’ 기사에서 소개된 외래어: 107명/144명(74%)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반면, 읽기 자료의 첫 줄에 나왔던 정보 사항을 묻는 ‘문항 9번’ 기사가 게시된 날짜: 32명/144명(22%)은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각 문항에 따른 모듈별 정답 인원의 수와 비율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매체 유형에 따른 문항별 정답 인원(비율)

| 평가 문항                           | 매체 유형별 정답 인원(비율) |               |                |
|---------------------------------|------------------|---------------|----------------|
|                                 | 웹 페이지<br>(n=48)  | pdf<br>(n=46) | 인쇄자료<br>(n=50) |
| ① 읽은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 이름은?           | 20<br>(41.6%)    | 11<br>(23.9%) | 23<br>(46%)    |
| ②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16<br>(33.3%)    | 22<br>(47.8%) | 28<br>(56%)    |
| ③ 읽었던 기사의 제목은?                  | 14<br>(29.1%)    | 14<br>(30.4%) | 21<br>(42%)    |
| ④ 기사 본문에 나온 사진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14<br>(29.1%)    | 6<br>(13.0%)  | 18<br>(36%)    |
| ⑤ 기사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틀리게 말한 사람은?  | 18<br>(37.5%)    | 19<br>(41.3%) | 28<br>(56%)    |
| ⑥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람은?             | 20<br>(41.6%)    | 24<br>(52.1%) | 37<br>(74%)    |
| ⑦ 기사에서 언급한 나라가 아닌 것은?           | 36<br>(75%)      | 42<br>(91.3%) | 47<br>(94%)    |
| ⑧ 기사에서 소개된 내용과 다른 설명은?          | 22<br>(45.8%)    | 22<br>(47.8%) | 32<br>(64%)    |
| ⑨ 기사가 작성된 시기는?                  | 7<br>(14.5%)     | 10<br>(21.7%) | 15<br>(30%)    |
| ⑩ 기사에서 소개된 외래어가 아닌 것은?          | 30<br>(62.5%)    | 34<br>(73.9%) | 43<br>(86%)    |

## 2. 모듈 1(웹 페이지)의 읽기 성과

모듈 1은 대상 초등학교 6학년 1반과 2반 48명이 참여했으며, 전자자료인 웹 페이지 기사를 국어 시간에 함께 읽고 평가 문항을 푸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 모듈은 읽기 자료의 원출처인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기사 원문을 그대로 제공했으며, 모두 읽는 과정에서 7개 상업광고가 확인되었다. 이 상업광고는 읽기 자료를 읽는 과정(scrolling)에서 실시간으로 팝업 형태로 또는 움직임이 있는 이미지인 gif 포맷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pdf와 인쇄자료에서 볼 수 있는 정지된 이미지인 화상(畫像)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전자자료 유형인 웹 페이지를 읽은 모둠 1은 평균 완독 시간은 3분 28초였으며, 평균 정답 문항의 개수는 3.9개/10개이다. 완독 시간대별 정답 문항의 평균 개수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모둠 1(웹 페이지)의 완독 시간대별 인원과 비율 및 평균 정답 문항 개수

| 완독 시간 | 인원(n=48)과 비율 | 평균 정답 문항 개수(n=10) |
|-------|--------------|-------------------|
| 2'    | 11명 (22.9%)  | 3.1개              |
| 3'    | 25명 (52.1%)  | 3.6개              |
| 4'    | 8명 (16.7%)   | 5.8개              |
| 5'    | 2명 (4.2%)    | 5.5개              |
| 6'    | 2명 (4.2%)    | 6.5개              |

이 연구의 설계에서 완독 시간은 등수를 부여하는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읽기 자료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스스로 인지하는 최종점을 의미한다. 모둠 1에서 전자자료서 웹 페이지를 온전히 읽는 데 걸린 시간은 전체 75%에 이르는 36명이 2' ~3' 대에 몰려있다. 이 모둠에서 가장 빨리 읽은 학생은 2' 11"이며 가장 오래 걸린 학생은 6' 31"이다. 완독 시간대별 정답 문항의 평균 개수를 비교하면 읽기 자료를 오래 읽을수록 정답 문항의 개수가 정비례하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평가 문항의 정답 개수별 인원과 그에 따른 평균 완독 시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읽기 자료를 읽는 데 걸린 시간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끼쳤는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답 문항 개수별 인원과 평균 완독 시간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모둠 1(웹 페이지)의 정답 문항 개수별 인원과 평균 완독 시간

| 정답 문항 개수(n=10) | 인원 (n=48)과 비율 | 완독 시간 (평균) |
|----------------|---------------|------------|
| 1개             | 3명 (6.3%)     | 3' 01"     |
| 2개             | 6명 (12.5%)    | 2' 55"     |
| 3개             | 8명 (16.7%)    | 2' 57"     |
| 4개             | 12명 (25%)     | 3' 08"     |
| 5개             | 9명 (18.8%)    | 3' 37"     |
| 6개             | 6명 (12.5%)    | 4' 29"     |
| 7개             | 4명 (8.3%)     | 4' 48"     |

전자자료인 웹 페이지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 기기의 디스플레이를 중간 매개로 정보(읽기 자료)

를 접하는 매체 유형이다. 모둠 1은 11.3" 디스플레이에 나타는 웹 페이지를 읽은 후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10개의 평가 문항의 정답 개수와 인원을 확인하였다. 이 모둠 1의 48명은 평균 3.99문제를 맞췄으며, 평가 문항 1문제를 맞춘 학생부터 7문제를 맞춘 학생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하였다. 정답 문항 개수가 많을수록 완독 시간의 평균이 길었으며, 이는 <표 7>의 완독 시간 대비 정답 문항의 평균 개수가 정비례하는 결과와 일치한다. 즉, 스스로 온전히 읽었다고 인식하는 완독 시간이 길수록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읽기 자료로서 디스플레이를 통한 웹 페이지는 읽기(reading)보다 훑어보기(skimming)로 가까워 빠르게 읽을 수 있으나, 주의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디지털 주의 산만(digital distraction)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프란시스 부스, 2014). 이는 노병성(2008)에서 밝힌, 디지털 독서가 인간의 사고를 파편화, 단편화하는 가능성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 3. 모둠 2(pdf)의 읽기 성과

모둠 2는 대상 초등학교 6학년 3반과 4반 46명이 참여했으며, 전자자료인 pdf 파일을 태블릿으로 국어 시간에 함께 읽고 평가 문항을 푸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 모둠은 읽기 자료의 원출처인 인터넷 신문 기사를 문자와 관련 이미지로 재편집하여 디스플레이로 읽을 수 있도록 pdf로 변환한 파일을 읽었다. 재편집하는 과정은 모둠 1이 읽은 웹 페이지에 나오는 팝업 형태의 상업광고는 삭제하였고, 글자 수, 띄어쓰기, 문단 구분 등 원문 기사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이 pdf 파일을 출력하면 모둠 3이 읽은 인쇄자료이기도 하다.

전자자료 유형인 pdf를 읽은 모둠 2는 평균 완독 시간은 5' 23" 였으며, 평균 정답 문항의 개수는 4.3개/10개이다. 완독 시간대별 정답 문항의 평균 개수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모둠 2(pdf)의 완독 시간대별 인원과 비율 및 평균 정답 문항 개수

| 완독 시간 | 인원(n=46)과 비율 | 평균 정답 문항 개수(n=10) |
|-------|--------------|-------------------|
| 2'    | 5명 (10.9%)   | 2.2개              |
| 3'    | 4명 (8.7%)    | 3.2개              |
| 4'    | 5명 (10.9%)   | 4.8개              |
| 5'    | 5명 (10.9%)   | 3.2개              |
| 6'    | 14명 (30.4%)  | 5.1개              |
| 7'    | 5명 (10.9%)   | 6.4개              |
| 8'    | 4명 (8.7%)    | 4.0개              |
| 9'    | 4명 (8.7%)    | 4.0개              |

모둠 2에서 전자자료서 pdf 파일을 온전히 읽는 데 걸린 시간은 30.4%에 이르는 6' 대를 기준

으로 이전과 이후 시간대에 고르게 나타난다. 이 모듈에서 가장 빨리 읽은 학생은 2' 22"이며, 가장 오래 걸린 학생은 9' 55"이다. 완독 시간대별 정답 문항의 평균 개수를 비교하면 7' 대까지는 평균 정답 문항의 개수가 정비례로 증가하지만, 이후인 8' 대부터는 갑자기 평균 정답 문항의 개수가 하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평가 문항의 정답 개수별 인원과 그에 따른 평균 완독 시간을 확인하였다. 같은 전자자료 유형인 모듈 1과 완독에 걸린 시간을 비교하면 2' 정도 차이가 난다. 모듈 1과 모듈 2는 같은 교육용 태블릿의 디스플레이로 읽기 자료를 읽었다는 점에서 공통이지만 내용을 표현하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양식 요인에서 차이가 난다. 그 차이가 완독에 걸리는 시간차 2' 남짓에 영향을 끼쳤는가의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충분조건이 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정답 문항 개수별 인원과 평균 완독 시간을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모듈 2(pdf)의 정답 문항 개수별 인원과 평균 완독 시간

| 정답 문항 개수(n=10) | 인원 (n=46)   | 완독 시간 (평균) |
|----------------|-------------|------------|
| 0개             | 1명 (2.2%)   | 2' 22"     |
| 1개             | 1명 (2.2%)   | 5' 43"     |
| 2개             | 7명 (15.2%)  | 5' 20"     |
| 3개             | 12명 (26.1%) | 4' 56"     |
| 4개             | 3명 (6.5%)   | 5' 09"     |
| 5개             | 7명 (15.2%)  | 6' 32"     |
| 6개             | 6명 (13.0%)  | 6' 23"     |
| 7개             | 5명 (10.9%)  | 3' 58"     |
| 8개             | 2명 (4.3%)   | 8' 38"     |
| 9개             | 1명 (2.2%)   | 7' 45"     |
| 10개            | 1명 (2.2%)   | 6' 18"     |

모듈 2의 평가 문항 정답 개수는 0개부터 10개 만점까지 고르게 나타난다. 같은 전자자료로 읽은 모듈 1에 비하여 정답 문항 개수가 7개인 고득점을 받은 학생이 9명(18%)에 이르며 완독 시간은 평균인 5' 23" 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모듈 3(인쇄 자료)의 읽기 성과

모듈 3은 대상 초등학교 6학년 5반과 6반 50명이 참여했으며, 전자자료인 pdf 파일을 출력한 인쇄자료를 국어 시간에 함께 읽고 평가 문항을 푸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 모듈은 모듈 2가 읽은 pdf 파일과 동일한 내용, 형태이지만 전자자료 기기인 디스플레이 중개 매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쇄자료의 분량은 A4 4장 정도이며 이미지는 컬러로 출력되어 전자자료 1, 2와

가독성은 동일하다.

인쇄자료를 읽은 모둠 3은 평균 완독 시간 7' 31"였으며, 평균 정답 문항의 개수는 6.2개/10개이다. 완독 시간대별 정답 문항의 평균 개수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모둠 3(인쇄자료)의 완독 시간대별 인원과 비율 및 평균 정답 문항 개수

| 완독 시간 | 인원 (n=50) | 정답 문항 개수 (n=10) |
|-------|-----------|-----------------|
| 3'    | 2명 (4%)   | 6.5개            |
| 4'    | 5명 (10%)  | 5.2개            |
| 5'    | 6명 (12%)  | 6.8개            |
| 6'    | 11명 (22%) | 6.1개            |
| 7'    | 12명 (24%) | 6.5개            |
| 8'    | 7명 (14%)  | 6.2개            |
| 9'    | 3명 (6%)   | 5.3개            |
| 10'   | 2명 (4%)   | 7.5개            |
| 11'   | 1명 (2%)   | 6.0개            |
| 12'   | 1명 (2%)   | 6.0개 문항         |

모둠 3에서 인쇄자료를 온전히 읽는 데 걸린 시간은 46.0%에 이르는 6~7'대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시간대에 고르게 나타난다. 이 모둠에서 가장 빨리 읽은 학생은 3' 21"이며, 가장 오래 걸린 학생은 12' 42"이다. 완독 시간대별 정답 문항의 평균 개수는 완독 시간대별로 6~7개로 고르게 나타난다.

전자자료를 읽은 앞선 모둠과 다르게 인쇄자료를 완독하는데 걸린 시간이 2'대는 단 한명도 없었다. 특히 동일한 내용, 형태로 편집된 읽기 자료를 디스플레이로 읽느냐(모둠 2), 종이로 출력해 읽느냐(모둠 3)의 차이일 뿐인데 두 모둠의 읽기 성과는 차이가 크다. 두 모둠의 완독 시간은 평균 2' 정도 차이가 있으며, 정답 문항 개수 역시 2문제 정도 차이가 있다. 또한 완독 시간대별로 평균 정답 문항의 개수가 고르냐 고르지 않느냐도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표 9>와 <표 11> 참고). 정답 문항 개수별 인원과 평균 완독 시간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모둠 3(인쇄자료)의 정답 문항 개수별 인원과 평균 완독 시간

| 정답 문항 개수(n=10) | 인원 (n=50) | 완독 시간 (평균) |
|----------------|-----------|------------|
| 4개             | 5명 (10%)  | 7' 13"     |
| 5개             | 8명 (16%)  | 5' 45"     |
| 6개             | 20명 (40%) | 8' 07"     |
| 7개             | 6명 (12%)  | 6' 17"     |
| 8개             | 8명 (16%)  | 6' 37"     |
| 9개             | 3명 (6%)   | 9' 00"     |

인쇄자료를 읽은 모둠 3이 전자자료를 읽은 다른 두 모둠보다 정답 문항의 개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높은 정답 문항 개수는 온전히 내용을 이해하는데 걸린 시간과 정비례하며, 전자자료를 읽은 다른 두 모둠보다 길다.

인쇄자료보다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읽는) 전자자료에 익숙한 학생임을 고려하면 위의 결과는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인쇄자료는 전자자료처럼 scrolling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훑어읽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읽는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 '디지털 주의 산만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용 이해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 V. 결 론

인쇄자료가 유일한 읽을거리였던 과거에 비하여, 급변하는 ICT 환경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쉽고 빠르게 다양한 매체 유형에서의 읽을거리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 초 디지털 이주민으로 구분되는 성인들 중심으로 사용되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스마트 기기는 20년이 지난 지금 아동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에 걸쳐 보급되었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시대와 맞물려 급부상한 전자책(전자자료)은 종이책(인쇄자료)이 주는 독서의 효용을 줄 수 있으며 아날로그 텍스트와 디지털 텍스트의 장단점을 조합한 새로운 독서에 대한 교육 방법의 필요함이 제기되었다(노병성, 2008).

이 연구는 학교 교육에서 많이 접하는 매체 유형인 전자자료와 인쇄자료에 따라 변화하는 읽기 성과를 온전히 읽는데 걸리는 시간과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고, 이를 학교 도서관에 있어 인쇄자료 이상의 다매체 독서 자료 구성에 시사하는 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신문 기사를 읽기 자료로 선정하고, 인쇄자료, 전자자료 1(웹 페이지), 전자자료 2(pdf 파일)로 매체 변환하여 초등학교 국어 시간을 활용해 읽도록 하였다. 그리고, 독서 후 10개 문제로 이루어진 평가 문항을 풀어 읽기 성과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읽기 자료는 정보 텍스트에 해당하며 전자자료를 읽는 모둠 1과 2는 11.3" 동일한 크기의 태블릿 디스플레이로 공통으로 사용하였고, 동일한 형식 텍스트지만 모둠 2는 pdf 파일의 전자자료로 읽었으며 모둠 3은 인쇄자료를 읽었다.

이상의 매체 유형으로 구분해 읽은 결과 웹 페이지로 읽은 모둠 1은 온전히 읽는데 걸린 평균 완독 시간이 가장 짧았지만 평가 문항에 대한 평균 정답 문항 개수는 가장 낮았다. 반면 인쇄자료를 읽은 모둠 3은 웹 페이지에 비하여 완독 시간이 2배 이상 길었으나 평균 정답 문항 개수는 가장 많았다. 디스플레이를 통한 웹 페이지는 읽기(reading)보다 훑어보기(skimming)로 가까워 빠르게 읽을 수 있으나, 주의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는 디지털 주의 산만(digital distraction)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인쇄자료와 전자자료가 주는 읽기 성과의 특성을 개관하는데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인원 수의 대표성, 모듈별 동질성 여부, 읽기 자료의 표준화 검정 등에 대한 제약 등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통적인 인쇄자료와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전자자료는 분명하고 구분된 특징을 갖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인쇄자료 중심의 전통적인 읽기의 방법이 디지털 기기 기반의 전자자료보다 내용의 이해도라는 학습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인터넷과 디지털기기가 익숙한 디지털 원주민은 종이에 인쇄된 읽기 자료보다 모니터나 태블릿 PC와 같은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읽기 자료가 익숙할 것이다. 교육부는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으로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참고한다면 학교도서관계 역시 디지털기기 또는 인쇄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독서교육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권예지, 나은영, 박소라, 김은미, 이지영, 고예나 (2015). 한국의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한국방송학보, 29(2), 5-40.
- 김성희, 김혜숙 (2013). 매체 생태학의 관점으로 본 독서교육의 방향. 독서연구, 30, 41-66.
- 김현정 (2011). 책의 역사와 디자인 요소 분석을 통한 전자책 디자인 제안: 제품환경디자인을 고려한 형태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31, 77-86.
- 김희동 (2015). 초등 국어 교과서의 텍스트 유형별 복합양식성 분석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59, 213-241.
- 노병성 (2008). 아날로그와 디지털 텍스트의 독서 패러다임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학회, 34(1), 151-188.
- 류보라 (2022). 중학생의 디지털 읽기 실행과 독자 정체성의 관계 연구. 독서연구, 64, 107-138.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 서유경 (2018). 과거의 독서 공간과 독서 방식. 독서연구, 48, 9-32.
- 송여주 (2013). 복합양식적 관점의 문학 교재 구성 방향.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교육, 96, 433-455.
- 신명환 (2016).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독서활동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2(2), 83-109.
- 에들러 외 (1993). 독서의 기술. 서울: 범우사.

- 옥현진, 서수현 (2011).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그림일기 표현 활동에 나타난 복합양식 문식성 양상 분석. 한국초등국어교육, 46, 219-243.
- 옥현진, 서수현 (2015). 초등 고학년 학생들의 디지털 문식 활동에 대한 가치 인식과 참여 양상의 관계. 한국초등국어교육, 59, 45-68.
- 웨이천, 이형재, 이해성, 이건웅 (2020). 글로벌 디지털출판과 전자책의 진화. 전자출판연구, 15(1), 10-25.
- 이미숙 (2011).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의 실천적 원리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41, 543-579.
- 이순영 (2011). 도서의 수준과 도서 선정의 제문제. 독서연구, 26, 61-96.
- 이순영 (2021). 청소년 비애독자의 현황과 지원 방안 연구. 독서연구, 60, 63-92.
- 이재승 (2000). 정보화 사회와 독서. 독서연구, 5, 83-104.
- 정병기 (2009). 연구 독서의 유형과 과정 및 방법: 연구 독서 연구를 위한 시론과 새로운 독서법 제안. 한국 사고와 표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0-55.
- 정현선 (2005). 언어·텍스트·매체·문화 범주와 '복합 문식성' 개념을 통한 미디어 교육의 국어교육적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28, 307-338.
- 조성민 (2019).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8 결과 보고서.
- 천경록 (2020). 독서 발달과 독자 발달의 단계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55(3), 313-340.
- 최숙기 (2013). 복합 양식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읽기 행동 분석에 기반한 디지털 시대의 읽기 교육 방안 탐색. 독서연구, 29, 225-264.
- 한돌 (2020. 11. 4.). 세종대왕이 광화문에 나와 받는 별. 한겨레신문, 출처:  
[https://www.hani.co.kr/arti/well/well\\_friend/968462.html](https://www.hani.co.kr/arti/well/well_friend/968462.html)
- Kress, G. (2003), Literacy in the new media age, Routledge.
-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9(5), 1-6.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dler, M. J. & Doren, C. (1993). How to Read a Book. Seoul: Bumwoosa.
- Cheon, Gyeong-rok (2020). Revisiting the stages of reading and reader developm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55(3), 313-340.
- Cho, Seong-Min (2019).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 An Analysis of PISA 2018 Results (RRE 2019-11).
- Choi, Sook-Ki (2013). The exploring reading education for multimodal text based reading

- behavior analysis in digital literacy environment. *Journal of Reading Research*, 29, 225-264.
- Han, Dol (2020, November 4). King Sejong's punishment for coming to Gwanghwamun. The Hankyoreh, Available: [https://www.hani.co.kr/arti/well/well\\_friend/968462.html](https://www.hani.co.kr/arti/well/well_friend/968462.html)
- Jeong, Hyeon-Seon (2005). Language, text, media and culture: four categories for multiliteracies education. *The Korea Society Elementary Korean Education*, 28, 307-338.
- Jung, Byung-Kee (2009). Patterns, processes and methods of study reading: An Essay for Academic Research on Study Reading and A Proposal of a New Reading Method. *Ratio et Oratio*, 40-55.
- Kim, Hee-Dong (2015). An analytical study on multimodality of text types in elementary korean textbook. *Journal of Elementary Korean Education*, 59, 213-241.
- Kim, Hyun-Jung (2011). Electronic-book design process through an investigation into history and design elements of the book -on form and function with consideration of product-environment design. *Journal Korea Society of Visual Design Forum*, 31, 77-86.
- Kim, Sung-Hee & Kim, Hye-Souk (2013). Reading education aims according to ecological media literacy. *Journal of Reading Research*, 30, 41-66.
- Kwon, Ye-Ji, Na, Eun-Yeong, Park, So-Ra, Kim, Eun-Mee, Lee, Jee-Young, & Ko, Ye-Na (2015). Digital natives and digital immigrants: comparing the impact of online activities on their perception of social connectednes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9(2), 5-40.
- Lee, Jae-Seung (2000). Informational society and reading instruction. *Journal of Reading Research*, 5, 83-104.
- Lee, Mi-Suk (2011). An empirical study on problems of reconstructions of multimodal literacy teaching and learning curriculum.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41, 543-579.
- Lee, Soon-Young (2011). Rethinking reader factors in text difficulty and text selection. *Journal of Reading Research*, 26, 61-96.
- Lee, Soon-Young (2021). Study on the status and support plan of non-habitual adolescent readers. *Journal of Reading Research*, 60, 63-92.
- Lyu, Bo-Ra (2022). The relation between the digital literacy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reader identity. *Journal of Reading Research*, 64, 107-138.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1). 2021 National reading survey.

- Ok, Hyoun-Jin & Seo, Su-Hyun (2011). Analysis of the first graders' multimodal literacy practices in picture diary composition. *The Korea Society Elementary Korean Education*, 46, 219-243.
- Ok, Hyoun-Jin & Seo, Su-Hyun (2015). Upper elementary students' value of and participation in digital literacy practices. *The Korea Society Elementary Korean Education*, 59, 45-68.
- Roh, Byung-Sung (2008). A study on reading paradigm in analog text and digital text. *The Studies of Korean Science*, 34(1), 151-188.
- Seo, Yu-Kyung (2018). The changes of reading areas and reading patterns in the past. *Journal of Reading Research*, 48, 9-32.
- Shin, Myoung-Hwan (2016). The reading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Studies of Korean Science*, 42(2), 83-109.
- Song, Yeo-ju (2013). A study for constructing the teaching materials of literature on multimodality. *The Academ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96, 433-455.
- WeiQun, Lee, Hyung-Jae, Lee, Hae-Seong, & Lee, Gun-Woong (2020). Global digital publishing market and concept evolution. *Korea Digital Publishing Society*, 15(1), 10-25.